

중앙도서관 선정 「4월의 도서」 추천사

■ 분야 1. 인문/사회과학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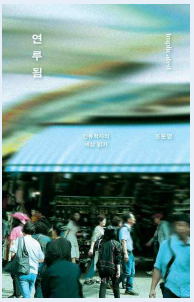


「성남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도진기 지음, 2024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22가지 재판 이야기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추리소설 작가 도진기의 2013년 작품 《성남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가 10년 만에 새로운 표지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 책은 피고인의 변론을 맡은 ‘소크라테스 변호사’와 피고인을 무작정 처벌하려는 ‘옥 검사’,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 고민하는 ‘염라대왕 판사’ 간의 공방을 통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법의 원칙을 22가지 이야기로 흥미진진하게 풀어낸다. 동화 또는 역사 속 인물들을 저승 법정에 불러내어, 그들의 유무죄를 가려내면서 현대의 법 개념을 코믹한 터치로 알기 쉽게 해설하는 이 책은 청소년교양도서로도 선정되며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법 상식 교과서”로 인정받았다.

(출처: 알라딘).....추천자 김유진 사서



「연루됨」 조문영 지음, 2024년

인류학자의 세상 읽기

어떤 세계들은 우리가 원하는, 원하지 않은 우리와 부대끼며 공존한다. 그 부대끼이 불편해 있던 곳을 떠나와도, 그것들은 모습을 바꾸어 끊임없이 재출현한다. 출몰하는 세계는 외면 가능한 타자가 아닌 집단적 삶의 조건이자 현상이 된다. 현장에 있기 위해 그는 그것이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를 집요하게 추적해가다, 그 길에서 때로 자기를 마주치고 심문한다. ‘연루됨’은 하필 자기와 맞닿게 된 특정한 세계와 관계 맺는 방편으로서 그에게 체화된다. 복잡한 삶의 현장 바깥을 걸돌며 관망하기보다 공모를 인정하고 연루됨을 자처하여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그곳에 있기’라는 인류학자의 체험은 연루되기를 통해 그만의 고유한 경험이자 삶의 일부가 되고, ‘이곳에 돌아와 쓰기’를 가능케 한다.

(출처: 알라딘).....추천자 박환호 사서

■ 분야 2. 공학/건축/디자인 (4층)



「호르몬은 어떻게 나를 움직이는가」 막스 니우도르프 지음, 2024년

호르몬, 그게 대체 뭐길래 내 감정을 이리 무지막지하게 조종하나. 내 몸과 마음에 어떤 호르몬이 얼마나,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막연히 상상해보면 두렵기까지 하다. 내 의지라는 것은 사실 호르몬의 의지인걸까? 호르몬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까? 이 책은 세계적 내분비 전문의인 저자가 인간의 생애 주기에 따라 어떤 호르몬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들려준다. 산모의 만성 스트레스, 그러니까 코르티솔의 과도한 분비는 아이가 태어나고 난 이후 신체와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후 첫 1~3년, 아기의 뇌에선 호르몬 폭풍이 일어나는데 이 시기가 앞으로의 삶에서 많은 부분을 결정한다. 과체중과 호르몬 사이엔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고, 피임약은 기억력에 변화를 줄 수 있다. 노인의 식욕 감퇴 역시 호르몬과 연결되어 있다. 이 책은 호르몬에 관한 체계적인 교양서로서, 몸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눈을 뜨게 한다. 몸과 건강에 관심이 있는 이라면 누구나 흥미롭게 빠져들어 읽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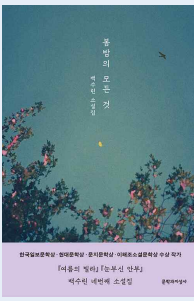


「당신의 음악 취향은」 수전 로저스, 오기 오가스 지음, 2024년

한 사람의 음악 취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나는 왜 그 곡에 꽂혔을까? 『당신의 음악 취향은』의 저자 수전 로저스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사랑했고, 수많은 음반을 들으며 보낸 시간들이 차곡차곡 그녀의 신경 경로에 새겨졌다고 말한다. 그녀는 20여 년간 음반 제작의 치열한 현장에서 수많은 앨범의 믹싱/엔지니어링/프로듀싱을 담당했다. 음반을 만들어 사람들이 음악을 대하는 반응을 직접 확인했고, 어떤 노래는 히트작이 되고 어떤 노래는 실패하는 이유의 내막을 알게 되면서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저자는 ‘음반 소개 모임’이라는 형식을 빌려 다양한 장르의 음반을 통해 독자들이 직접 자신의 최적 지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음반들도 있지만 책을 읽다보면 개인마다 지금까지 들어온 음악들 중 각 차원에서 내가 반응했던 노래들이 하나둘씩 생각나면서 나의 음악 청취 역사와 내가 좋아하는 곡들에 대해 말하고 싶어진다.

(출처: 알라딘).....추천자 김은비 사서

■ 분야 3. 소설/시/희곡 (5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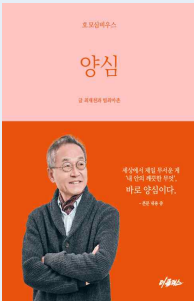


「봄밤의 모든 것」 백수린 지음, 2025년

"그 봄밤의 밀도와 향기만큼은"

섬세하고 사려 깊은 시선, 우아하고 단정한 문장으로 고유의 아름다운 세계를 펼쳐 보인 작가 백수린의 네번째 소설집 『봄밤의 모든 것』이 출간되었다. 이번 소설집 역시 작가 특유의 빛을 가득 품고 있지만, 작품마다 조금은 다른 색채를 펼쳐나간다. 가까운 사이였지만 영영 떠나보낸 사람과의 시간, 그리하여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 없는 나날 속에 놓인 화자들에게 한 줌의 빛이 닿는 순간을 포착한 일곱 편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 겨울의 한복판이라도 우리는 봄을 기다리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작가의 말’처럼 상실과 죽음 앞에서 뽀뽀 얼어붙어 부서질 듯한 마음들에게 온기가 깃든 “봄밤의 모든 것”을 건넨다.

(출처: 알라딘).....추천자 전석현 사서



「양심」 최재천 지음, 2025년

"최재천 교수님이 건네는 2025년 첫번째 키워드 '양심'"

신간 『양심』은 인간과 생태를 오랜 기간 탐구해 온 최재천 교수님이 방송 외 글로 전달하고 싶은 마음을 담은 '양심'편을 수록했습니다. 사회적 양심에 대한 철학적이면서도 실천적인 성찰을 담아낸 '차마, 여차피, 차라리'는 교수님의 깊은 통찰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교수님은 인간과 사회의 공정함은 결국 양심에서 출발한다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 시대의 '양심'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잊히고 있던 양심의 가치를 재조명하며 개인의 도덕적 책임과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출처: 알라딘).....추천자 전석현 사서